**성장배경**  
  
기억이 있을때부터 생각해보면 부모님 두분이 집에 밤늦게까지 안계실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는시간은 항상 있었죠. 강박적이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비어있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하고있어야 좀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락실에 머물러있는것도, 집에서 일본만화를 보는것도, 책을 읽는것도, 걸어다니며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는것도 재밌게 했던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에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신기한것들을 찾아서 길을 걷다가 치킨집에 붙어있던 “전단지 100장에 천원”이라는 광고를 본 이후로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일이라는것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당시를 생각해보자면 그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어떤 표현을 내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즐거웠던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20살정도까지는 일을 한다는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즐기며 했고,  
20살정도부터 신학을 그만두기 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보람을 가지고 일했고  
신학을 그만두고 2015년도 정도부터는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기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직무관련 경험**  
  
아르바이트만 거의 1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알게되었고, 나 뿐만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라는 공동체 모두를 위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고, 만났던 손님이 수만명은 될테고 그중에는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고, 비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을 원하고 있었고, 저는 어렵지 않게 그들이 원하는 “기본”을 내가 속한 조직에서 넘치지 않는선에서 무엇을 제공해주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말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고, 그중에는 가끔씩 재방문하는 경우도 점점 생겨가기도 하였습니다.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방문한 곳에서 기대되는 재화와 암묵적으로 기대했던 만족감이상을 얻길 원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웹 에이전시들을 통한 경험으로는 비용산정의 근거는 보통 인건+@를 생각해야한다는 것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복잡할수록 아무리 이해를 서로간에 잘한다고 한들,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 까지 과정에 있어서 조율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봐왔고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 직원들의 피드백입니다.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전체적으로는 “회사를 위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라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웹 에이전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였던 곳에서는 회사를 위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는 마음가짐이 암묵적으로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분명 좋은 편은 다들 아니였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를 위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고 “결과”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웹 에이전시는 분명 실력은 전자에 비해서 월등히 더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분업도 나뉘어져 있었구요. 하지만 “회사를 위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라는 마음가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로의 영역에서 서로의 일에는 충실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마치 A파트에서 -2가 되어야하는데 그러자면 B파트에서는 -0.1을 줄여야하고 그런 연계작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했던일을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를 반복했고, 결과적으로는 기한도 밀려나고 클라이언트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부 직원들 끼리는 클라이언트를 욕하기도하고 회사를 욕하기도하고 심지어 같은 회사 타 팀을 욕하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모습도 봐왔습니다.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자연스레 인지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자체가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동기 및 포부**  
  
그동안 프로그래밍 관련공부를 1년간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래해왔던 이유는 “제가 돈받으면서 일할 자신이 없어서 더 기초, 더 기초를 쌓자”는 생각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병원생활이 불분명했고, 여전히 재활은 필요해서 지원은 하지못하고 재활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최근의 수술이 잘되어서 회복은 끝을 앞두고 있고, 배워왔던것도 휘발됨으로 없어지기 보다는 실무에 적용해가며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지원 동기입니다.  
  
입사 후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일을 하되 저 개인이 맡은 직무에 대한 성장, 그리고 회사에 성장에 기준을 두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중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나서 돌아봤을때 저 개인의 유의미한 발전. 그리고 제가 속했던 팀, 회사의 성장을 보면 제가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했구나. 라고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가능스킬**

Python -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포함 8개월이상 학습중  
- pandas  
- selenium  
- beautiful soup  
- django  
  
Sql - 3개월이상 학습함  
- postgreSQL  
- MYSQL  
  
Web - 본격적인 웹은 django 이후로 학습중  
- html  
- css  
- Javascript